이달말 임대 만료 광주 금남지하상가

분양-세입자 합의해야 임차권 준다

혼란 불가피 … 기존 분양자 반발

임대기간 2년 제한 재임대는 금지

'분양자와 세입자가 합의해서 한 사람 명의로 임대신청을 해야 한다.'

이달 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금남지하상가의 분양 후 임대점포에 대해 광주시가 제시한 새 임차 기준이다. 점포 분양자와 세입자가 다를 경우 양자가 합의해 둘 중 하나가 임대신청을 하도록 한 것이다. 분양 후 임대점포는 전체 점포의 80% 수준이다. 시는 또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으며, 전매(재임대)할 수 없게 했다.

광주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남지하상가 1공구 임차기준을 정해 지난 2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차기준은 금남지하상가의 임대기간을 2년으로 못박았다. 또 21일 현재 점포를 소유한 자 중 실제 사업자등록을 한 직영점포에 1순위 임차권을 부여했다. 직영점포는 전체 204개 곳 중 약 30곳 정도다.

분양 후 임대 상가를 대상으로 한 2순위 선정기준은 복잡하다. 이 경우 분양자와 세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중인 상인)가 합의해 한 사람 명의로 임대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1·2순위 해당자가 없을 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차인이 선정된다.

이에 따라 직영점포 약 30곳을 제외한 170여 개 점포는 분양자와 세입자가 각 점포의 매입비용과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합의를 통해 실제 점포를 운영할 임차인을 정해야 한다.

문제는 합의기준이 없는데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시는 분양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충금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 선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직영업자를 제외한 상당수 분양자가 이 같은 기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양자와 세입자 간 합의 기준도 없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남지하상가 분양자모임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도 점포의 양도양수가 허락됐는데, 인제 와서 전대(재임대)를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분양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처사"라며 "시청을 항의방문해 공고 자체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모임 측도 "만일 분양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없어 당황하고 있다"며 "분양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기간 내에 합의를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점포별로 계약 조건이나 기간, 보증금 등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공무원·교수·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임차인선정위원회를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편, 시는 점포별 임대료는 감정평가(법인) 2개사가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했으며, 새 임차인은 1년분 임대보증금을 납입한 뒤 매달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5-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23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2009년 추석 선물 세트가 예약 판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예약판매기간인 내달 6일까지 추석선물세트를 상품별로 약 /연합뉴스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 광주 상륙

충장로에 오픈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가 지난 21일 광주 중심상권인 충장로에 문을 열었다. '자라'가 지방에 매장을 내는 것은 부산과 대구에 이어 3번째다. 충장로점은 옛 프라이비트 건물에 자리잡았으며, 매장 총 면적은 1천623㎡로 1층에선 여성복, 2층에선 남성복과 아동복을 판다.

'자라'는 상품 기획에서 제조, 판매까지 병행해 최신 트렌드 상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스파(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브랜드다.

지난해 4월 서울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과 삼성동 코엑스에 매장을 열면서 국내에 진출한 자라는 광주충장로점 오픈과 함께 모두 10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자라 관계자는 "전세계 '자라' 매장 중 가장 최신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출했다"며 "'자라'만의 특색을 선보여 광주의 패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다세대 주택 5천만원까지 지원

'전세시장 안정대책' … 원룸도 ㎡당 80만원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과 임대는 가구당 최대 5천만원, 원룸과 기숙사는 ㎡당 8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연합뉴스

폭스바겐, 광주서 수입차 최다 판매

올 7월까지 120대 팔려 … 아우디·혼다 順

폭스바겐이 올 7월까지 광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내놓은 수입차 등록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광주에서 판매된 전체 수입차 580대 가운데 폭스바겐은 120대(20.6%)를 판매해 선호도가 제일 높았다. 지난한 해 광주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127대)에 맞먹는 성적을 낸 것으로, 모델 중에는 '파사트'가 가장 많았고 '골프', '티구안' 등이 뒤를 이었다.

7월까지 광주 수입차 구매자들이 산 차량들을 브랜드별로 보면 폭스바겐에 이어 아우디(76대), 혼다(66대), BMW(58대), 렉서스(50대) 등 순이었다.

폭스바겐은 또 전국적으로도 상반기 3천706대를 팔아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52% 늘어나는 등 국내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폭스바겐코리아측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수입차로서는 부담이 덜한 가격과 연비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설명했다.

박동훈(사진) 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자사의 최고급 모델인 '페이톤' 고객초청 행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 "효율적 연비와 가속력에 소음도 적고 친환경 컨셉트까지 갖춘 '성능 좋은 자동차'라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깎아주지 않아도 팔리는 합리적 가격을 제시한 것이 경기침체에도 급성장하고 있는 비결"이라며 "광주에서도 수도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강점"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 떡 對美 수출 '날개'

'예담은' 4월 이어 이달에도 13t 선적

교포 인기 … 수출업체 7곳으로 늘어

광주 대표 떡 '예담은'이 재미교포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담은'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떡 4.3t을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22일 이 물량의 3배에 이르는 13t(7천만원 상당)을 선적했다.

이번 선적 품목은 지난 5월 미국 현지출장 시장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호응을 얻은 송편, 기정떡, 영양떡, 경단류 등 12개 품목으로,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 수출됐다.

이 같은 수출 호조로 인해 광주지역 떡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져 해오름떡전문점, 떡보의 하루 호남본부,김정숙 병과방, 명지원 등 4개 업체가 추가로 수출에 참여해 참가업체는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다.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은 수출하는 떡의 품질 저하와 파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떡 수출용 포장 박스를 별도 제작하고, 수출과 관련한 통관 절차와 서류 작성을 대행해 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했다.

이번에 수출된 물량은 미국 동부지역에 다음달 중순께 도착해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한인의 날' 행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광주시 떡산업육성사업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쌀 소비촉진과 전통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기능성 떡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대기아차 부회장 정의선씨 승진 발령

현대기아차그룹은 최재국 전 부회장 퇴임 이후 공석이던 현대차 기획 및 영업담당 부회장직에 정의선(39·사진) 기아차 사장을 전보, 승진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몽구 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 사장은 '디자인 경영' 등을 통해 기아차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차 부회장으로 승진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정 사장의 기아차 후임 사장에는 이형근 해외영업본부 담당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현대기아차그룹의 후계구도를 가시화하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또복권 (제35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5 25 27 29 34 36		33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583,357,150	4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9,387,521	29
3	5개 숫자 일치	1,514,722	1,137
4	4개 숫자 일치	62,094	55,472
5	3개 숫자 일치	5,000	950,273

팝콘복권 (제17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3조	549524
2	1억	4조	962209
		5조	643666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88854
5	50만	각조	7283
6	2천	각조	46
		각조	53
		각조	57
7	1천	각조	5
		각조	9
		각조	2

▼ 코스피지수 1,580.98 (-10.43)

▼ 코스닥지수 512.14 (-18.98)

▼ 금리 (국고채 3년) 4.34% (-0.27)

▲ 원·달러 환율 1,249.70원 (+10.50)

※수치는 21일 기준 14일과 비교